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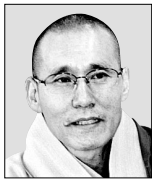
일 주 문



북인도 다람살라 · 라다크 순례
정우 조계종근교구장 스님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군승 19명과 함께 북인도 다람살라 및 라다크를 순례한다.



신흥사 교구중회 개최
우송 속초 신흥사 주지 스님은 7월 7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교구중회를 개최하고 성보문화재 유물전시관 건립 등 안건을 의결했다.



어린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8월 14~16일 봉은사 경내에서 봉은사 어린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접수는 8월 7일까지다. (02)3218-4825



안봉려관스님 77주기 추모다례
성효 제주 관음사 주지 스님은 7월 13일 제주불교 중흥조로 불리는 안봉려관스님 77주기 추모다례를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했다.

불교신문 사장에 주경 스님 임명



불교신문 사장에 주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 신임 사장 주경 스님(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경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언론이자 불법 홍보를 위한 표교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설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4,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서산 부석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팀장급 인사 소폭 단행

조계종은 7월 14일 제5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팀장급 인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이석심 前 총무차장이 이동하며, 총무팀장은 윤승환 前 기획팀장이, 사찰교무팀장은 권대식 前 사회부 국제팀장이, 기획팀장은 김용구 前 사회팀장이 맡게 됐다. 사회팀장과 국제팀장으로는 양원준·김기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팀장이 보직을 이동하게 됐으며, 안거 휴가 중인 공승관 호법팀장을 대신해 전인동 前 사찰교무팀장이 맡게 됐다.

일반적으로 조계종은 12월 경 정기 인사를 진행해왔으나, 예산 및 사업 계획을 편성했던 총무원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총무원이 달라 업무에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지원 스님은 "종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7월 인사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사찰림 연구로 사찰 재정에 기여”

이태수 초대 한국사찰림연구소 소장

불교계 유일의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7월 9일 공식이던 소장인 산림전문가 이태수 박사(사진)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태수 박사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박물관 담당관과 임산화학과장, 화학미생물과장 등을 지내고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소 이사를 맡는 등 30여 년간 임업연구에 몰두해왔다.

이 소장은 전국적인 사찰별 사찰림 연구조사와 사찰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앞장서고 사찰림의 보호관리와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한국의 사찰은 많은 면적의 사찰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라며 “각 사찰에서는 사찰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찰림은 산림 휴양적 가치가 매우 높기도 하지만 임업적 가치도 상당하다.

이 소장은 “계획적으로 일부 나무를 베어서 이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면 벌채한 나무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가치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는 불교계 재정 확보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소장은 “후대를 위한 생태보전의 경제적 가치는 계산할 수 없다. 계획적인 벌목과 관리 등을 지



불교계 유일의 산림연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경력 도대 생태조사 및 임업 계획 수립

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실한 불자인 이 소장은 2000년 11월 국립산림과학원 직원들의 불자 모임인 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를 창립하고 매달 회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처음 100부로 시작한 회보 ‘산림불교’는 현재 2900부까지 발간하고 있는 상태다.

이 소장은 “정부기관이지만, 고위직에 기독교 신자가 많아 혼신 중 성경구절 인용 등이 잦았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불교 믿어 눈 밖에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자가용 차에 염주를 달고 다니는 직원에게 불교신자가 아니냐고 물어보아도 아니라고 답할 정도였다. 반면 기독교계는 신우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각종 ‘식재서원불사’ 회향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7월 12일 서울 총인원 탑주심 인당을 비롯해 전국 각 심인당에서 ‘메르스 소멸과 가뭄 해갈을 위한 식재서원(息災誓願) 회향불사’를 봉행했다. 7월 월초 불공 회향불사를 겸해 열린 이날 진인행자들은 강도발원을 통해 “메르스는 식재불사를 봉행하자 확연하게 진정 기미를 보였고 극심했던 가뭄을 해소해줄 뜻은 비 소식도 전해졌다”며 “3자성 특별 진호국가불사를 이제 회향하면서 뜻 생명과 더불어 살려는 보살 정신을 회복해야 하겠다”고 서원했다. 김주실 기자

일면스님, 만해마을 캠퍼스 점검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이 7월 14~15일 강원도 만해마을 캠퍼스(이하 만해마을)와 낙산학사를 현장점검 및 발전계획 의견 수렴을 위해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법인 사무처장 종민스님과 허광도 기획관리부장, 이형열 사업부장 등이 동행했고, 동국대에서는 한태식 총장을 비롯해 신재호 기획부총장, 양영진 교무부총장, 오원배 대외부총장, 박대경 기획처장, 박군서 관리처장 등이 함께했다. 노덕현 기자

“찾아가는 음악회로 불교 알려요”

종립학교 학생을 위해 음악회 여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

니르바나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종립학교를 찾는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강형진 단장(사진)은 7월 13~14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원옥 스님의 뮤직+’를 진행했다. 종립학교인 중대부여중과 동대부고를 찾아 이틀에 걸쳐 음악회를 연 강 단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불교와 음악을 알리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단장은 “음악회는 집중도가 낮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30분 정도 공연을 펼치고 나머지 30분은 원옥 스님(목동 반야사 주지)의 법문이 이어졌다. 원옥 스님의 재미있고 압축적인 법문과 공연이 임팩트 있게 전달돼 상당히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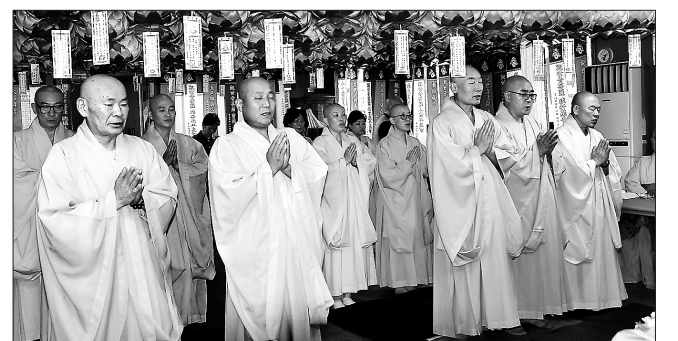
이 좋았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니르바나가 매년 진행하던 봉축 기념음악회 대신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찬불가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강 단장은 “중학생들은 집중도가 떨어져 진행에 다소 산만함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은 음악을 차분히 감상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흐뭇했다. 처음 시도한 만큼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학교 측과 의논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더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단장은 “대형음악회는 재정 마련과 인적 구성을 갖추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찾아가는 음악회는 소규모로 진행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원옥 스님의 뮤직+’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조계종 문화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면 앞으로 학생들과의 협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공연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음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한불교원조계종 보살계 산림 법회



(사)대한불교원조계종(총무원장 도암, 세계불교승가총연합회 총재)은 7월 12일 부산 금정구 회문사에서 대승보살계 및 비구·비구니 품계 산림대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산 및 각 종단 종도 대승스님들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품계 증명법사로는 대한불교 화엄선종 종정 무승 스님, 한국불교 지장암 회승 정공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위원 성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장

Advertisement for 'With Buddha'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ddha figure and text promoting handmade Buddhist products. Text includes: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www.withbuddha.co.kr',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 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